

전남도,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도입

작년 5개 시·군 시범운영...올해 200대로 늘려 요금 기본 2km 500원 1km 추가 시 100원 적용

전남도는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도내 5개 시군에서 89대를 시범 운영하던 바우처택시를 올해 200여 대까지 늘려 모든 시군에 전면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평소 도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요청 시 비활체어 교통약자가 우선 이용하도록 서비스하는 장애인콜택시 이외의 차량이다.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비활체어 교통약자가 바우처택시 배차를 요청하면 기존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한 요금으로 관내 지역을 이동할 수 있다. 요금은 기본 2km에 500원, 1km 추가 시 100원이다. 최대 요금은 각 시군 시내 버스 요금 이내로 한정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는 공급이 부족한 장애인콜택시의 보완 수단이다. 보행이 가능한 비활체어 교통약자가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도록 유도해 기존 장애인콜택시 수요를 줄일 계획이다. 교통약자에게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즉시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바우처택시를 시범 운영한 결

과, 교통약자가 가장 불편하게 여겼던 대기시간이 단축돼 바우처택시 도입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가 확산했다. 도입 이후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수도 증가

추세다. 여기에 전남도가 지원하는 바우처택시 운영 예산은 코로나19로 불황을 겪는 택시업계로 흘러 들어가 서민경제 활성화로 선순환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부양에도 도움이 되는 셈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국도 단위 최초로 도입한 바우처택시가 조속히 정착하도록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해 운영상 미비점을 지속해서 보완하겠다"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 및 회원등록 문의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061-287-8340~1)나 콜센터(1899-1110)로 하면 된다. /길용현 기자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책회의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등이 24일 오후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책회의에 참석해 수색 및 구조 계획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여순사건 진상규명 신고 첫 날 25건 접수

도, 위원회에 결정 요청

전남도는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첫날인 지난 21일 진상규명 신고 1건과 희생자·유족 신고 24건 등 총 25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접수처는 25건 모두 전남도다.

시군별로는 여수 8건(희생자·유족 8), 순천 15건(희생자·유족 15), 고흥 2건(진상규명 1과 희생자·유족 1)으로 주로 여순사건 피해지역에서 신고가 이뤄졌다.

전남도는 피해 사실 입증자료, 보증서 등 신고·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고 각 지역 및 유족회에서 서단체 신고를 계획하고 있어 설 연휴 이후부터 본격적인 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남도는 접수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를 취합해 사실조사를 하고, 실무위원회에서 심사 후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실조사를 위

해 각 시군에 사실조사단을 구성, 도·시군 담당 공무원과 사실조사 요원 대상 기본·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사실조사단은 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과 사실조사 요원으로 구성,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에 대한 상담과 사실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군 담당 공무원과 사실조사 요원을 대상으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20시간 이상 진행함으로써 사실조사 역량 및 면담·녹취 기술 등을 교육해 조사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희생자·유족이 한 분이라도 빠지지 않도록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신고·접수 홍보도 진행한다.

사건 관련자가 주로 고�령임을 감안해 TV, 라디오 등 고령자에게 접근성이 좋은 매체를 통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외에도 신고·접수 관련 카드뉴스를 전남도 누리집과 네이버 블로그 등 SNS에 게재하고 주민본전남사무소 누리집에 신고·접수를 공고하는 등 신고접수 사항이 전남도를 넘어 전국과 국외에도 노출할 방침이다. /길용현 기자

청 비서관 인사...공직기강 이병균·제도개혁 송창욱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이병균 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했다.

이 내정자는 경희대 법학과를 나와 변호사로 활동하다 청와대로 합류해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실 행정관, 반부패비서관실 행정관, 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거쳤다.

문 대통령은 또 제도개혁비서관에는 송창욱 제도개혁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했다.

송 내정자는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해 국회의원 보좌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및 춘추관장실 행정관 등으로 일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



이병균 송창욱

서 "신인 비서관들은 청와대 내의 여러 비서관실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으며 해당 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소관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적임자"라며 "말은 바, 역합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취임

제31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으로 김승희 청장(사진)이 취임했다.

신임 김승희 청장은 행정고시 36회로 서울대 정치학과, 동 대학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그동안 환경부 정책총괄과장,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금강유역환경청장, 기후환경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대기환경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김승희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사회 실현, 물 관리 성과 창출, 함께 누리는 환경서비스 공간 확산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세먼지 감축·하천관리 일원화, 코로나 19 장기에 따른 의료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등을 약속했다. 그는 이어 직원들에게 "기후 행동 홍보대사 풀꽃의 노래 '너를 만나'의 가사처럼 '따뜻한 이해, 소중한 배려'가 든든하게 지원하고 지켜줄 수 있는 영산강청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기자

광주·전남 코로나 검사·치료체계 전환

PCR 검사 고위험군만 시행

오는 26일부터 광주시를 비롯해 전남도, 경기도 평택·안성시 등 오미크론 우세지역에 새로운 코로나 검사·치료 체계가 전환돼 시행된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정된 방역 및 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전체 확진자 규모의 통제·관리보다 고위험군(우

선검사필요군)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PCR 검사는 기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등 역학 연관자, 의사 소견서 보유자, 60세 이상, 자가검사키트 양성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 고위험군에만 시행한다.

이 외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

해 현장에서 제공하는 자가키트로 검사를 받거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받고, 검사 결과 양성 이 확인이 되면 PCR검사를 진행한다.

새로운 코로나 검사·치료체계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23곳의 병·의원급의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우선 전환해 시행한다.

이달주 시 복지건강국장은 "새로운 검

사·치료체계가 광주지역에 우선 적용되다 소 불편하겠지만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전환임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급증하는 확진자의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환자를 제외한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관리 기간을 오는 26일부터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이번 단축은 오미크론 우세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예방접종을 완료한 확진자는 재택치료 등의 치료 과정에서 7일 경과 이후 바로 격리가 해제된다. /오선우 기자

전남도, 양돈농가 방역시설 설치 지원

70억 투입...농가당 5천만원

전남도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양돈 사육 농가에 맞춤형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키로 하고, 사업비 총 70억 원을 투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돼지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 성 질병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양돈농가

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의 일환이다.

사업비로 설치할 수 있는 농가 핵심 방역시설은 내부 울타리, 방역실, 전실, 입·출하대, 물품 보관시설, 폐기물 관리시설 등이다.

지원금은 농가당 최대 5,000만 원이다. 소요 비용의 60%를 보조하며, 자부

담 비율은 융자 30%를 포함 40%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과에 속한 동물에게 나타나며, 치사율이 100%에 육박한다. 바이러스 생존력이 매우 높아 냉장 또는 냉동 상태로도 수개월에서 수년간 생존할 수 있다. 예방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농가 단위 차단 방역활동 강화가 최선의 대비책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야생멧돼지가 충북지역까지 남하한 만큼 해당 지역을 경유한 차량과 사람들

통해 언제든지 전남에 유입 가능한 상황"이라며 "양돈농가는 질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방역시설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내에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확인된 2019년 9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돼지농장에서 경기 9건, 강원 7건, 인천 5건 등 21건이, 야생멧돼지에서 강원 1,238건, 경기 655건, 충북 69건 등 1,962건이 발생했다. 전남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길용현 기자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광고·영양·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i1000@hanmail.net

월간 전남매일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본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구독문의 062) 720-1006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니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할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호남지사 010-2175-4731 / 062-417-4731
(주)제이엠신용정보

질병관리청

봄바람, 코골이를 간질여도
거리 두기를 합니다
기다렸던 예방접종이 시작되어도
마스크를 씁니다

#우린 #방역에진심인편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회환 3단
근조회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